

# 中央아시아의 韓國人 社會

——文化接變의 研究——

李 文 雄

(서울大學校 社會大 教授)

<目 次>

- |                            |                 |
|----------------------------|-----------------|
| I. 序 言                     | IV. 移住經路 및 定着過程 |
| II. 蘇聯의 行政區域 및 韓國人         | V. 中央아시아의 韓國文化  |
| 集團 居住地域                    | VI. 結 言         |
| III. 蘇聯의 韓國人們：<br>人口學的인 檢討 |                 |

## I. 序 言

대체로 海外의 移民社會는 이주민들이 옮겨온 文化와 그들이 새로이 정착한 지역의 기존 文化 간에 전면적인 접촉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文化接變에 관심이 있는 社會科學者들, 특히 人類學者들의 주의를 끌어 왔었다. 두 개 이상의 文化간의 활발한 접촉은 쌍방간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移民社會의 구성원들은 사실 그들 고유의 文化體系를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접하게 되는 文化, 즉 토착의 文化로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히게 되는 文化要素들은 그들의 文化體系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는 두 문화의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새로운 組合(combination)과 綜合(synthesis)이 일어나 결국 제 3의 文化體系를 형성하게 된다. 이 경우 이민사회의 규모가 크고, 구성원들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잘 단합된 집단을 이루고 있을 때에는, 그들은 옮겨간 전통문화의 요소들을 비교적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移民들이 그 사회의 지배적인 민족집단속으로 흩어져 버릴 때에는, 그들은 民族的인 아이덴티티(ethnic identity)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들이 가져간 전통문화는 빠른 시일내에 지배적인 문화속으로 용해되어 버려 그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힘을 잃을 것이다.

本論文에서 우리는 소련의 中央아시아 地域에 정착한 한국인 사회에 서 전개된 文化過程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한국인 이주민 사회는 1970年度 人口調查에 만도 20여 만명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큰 규모이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해 간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1937년 일시에 강제로 이송된 사람들 및 그들의 자손들로 이루어졌고, 또한 비록 지리적으로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그들이 민족적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中央아시아 여러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中央아시아의 韓國人 社會”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中央아시아의 한국인 사회는 지금까지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간 해외의 한국인 교포사회들과는 달리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에 한국과는 거의 아무런 문화적인 접촉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우선 소련의 행정구역을 파악하고 한국인들의 집단거주 지역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그 많은 한국인들이 어떠한 이유로 그리고 어떠한 경로로 그렇게 멀리 中央아시아에까지 강제이송되었는지를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韓國人 社會의 文化過程을 검토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물론 그들이 옮겨간 한국의 전통문화 요소들이 어떻게 변용되었으며 어떤 형식으로 살아남아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할 것이다.

연구자가 실제로 現地踏査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 연구는 제2차적인 자료에 의거할 수밖에 없었던 제약점을 수반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의 민속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한국인 사회를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의 보고서 및 民族誌들은 크게 도움이 되었다. 또한 소련의 人口調查에서 나타난 통계로부터 우리는 한국인의 규모 및 人口學的인 특성들의 윤곽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中央아시아의 한국인촌을 방문한 바 있는 한국인 및 일본인들의 여행기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이 한국인 사회의 문화과정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해 주었다. 물론 여기에서 사용된 자료들은 어느 특정 한국인촌에 관한 집약적인 현지조사의 결과만도 아니고 광범위한 지역에 산재해 있는 한국인 사회들에 관한 무작위적인 표집으로 간주될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들은 지금까지 베일에 싸여 있던 中央아시아의 한국인 사회의 문화과정을 조명해 주는 데에 유용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필자는 감히 이 연구를 시도하였다.

## II. 蘇聯의 行政區域 및 韓國人 集團 居住地域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中央아시아의 韓國人 社會들은 지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이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우선 소련의 行政區域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두는 것이 좋겠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이들 韓國人 社會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 하나의 안내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의 행정구역은 이 지구상에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히 복잡하다. 상세한 기술은 본 논문에서 의도하는 바가 아니므로 간단하게 그 윤곽만을 그려 보기로 하자.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蘇聯(U.S.S.R.;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은 15개의 聯邦共和國(Union Republics)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이 공화국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 속에 있는 것은 각기 공화국의 首都이고, \*표는 韓國인이 적어도 1,000名 이상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다.)

\*Russia 또는 RSFSR (Moscow)

Ukraine (Kiev)

Belorussia (Minsk)

Azerbaijan (Baku)

Georgia (Tbilisi)

Armenia (Yerevan)

Moldavia (Kishinev)

Estonia (Tallin)

Latvia (Riga)

Lithuania (Vilnius)

\*Kazakhstan (Alma-Ata)

\*Turkmenistan (Ashkhabad)

\*Uzbekistan (Tashkent)

\*Tadzhikistan (Dushanbe)

\*Kirghizia (Frunze)

Soviet Central Asia

위의 15개 연방공화국 중에서 R.S.F.S.R.(Russian Soviet Federal Socialist Republic, 또는 러시아共和國)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럽 및 西部아시아 그리고 中央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가 비교적 밀집되어 있는 공화국

들이다. RSFSR은 나머지 14개의 共和國들을 제외한 소련의 전지역, 다시 말하여 USSR 전체 지역의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극 가까이서부터 남으로는 黑海에 이르기까지, 極東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칼리닝그라드(Kaliningrad)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人口는 1974년 1월 현재로 소련 전체 인구의 약 53%가 RSFSR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中央아시아 다음으로 韓國人們이 많이 살고 있는 소련의 極東地域(Soviet Far East)에 있는 사할린, 하바로브스크, 沿海州지역, 캄차카 및 코리야 등도 모두 RSFSR에 속하는 행정구역들이다.

15개의 연방공화국들은 다시 총 126개의 地域(krai) 및 區域(oblask)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사실상 行政區域은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소련에는 수많은 民族集團들이 있다. 이 연방공화국들 속에는 크고 작은 민족집단들이 自治的인 行政 단위를 구성하고 있어서 소련 전체로는 20개의 自治共和國(Autonomous Republics; ASSR), 8개의 自治區域(Autonomous Regions; AR), 그리고 10개의 民族地域(National Areas)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연방공화국들이 거의 대부분 특정의 지배적인 民族集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RSFSR에는 이런 少數民族集團들에 의해 형성된 自治的인 行政單位들이 많다. 즉 20개의 自治共和國(ASSR)들은 RSFSR에 16개, Georgia에 2개, 그리고 Azerbaijan과 Uzbekistan에 각기 1개씩 있고, 8개의 自治區域(AR)들은 RSFSR에 5개, 그리고 Georgia와 Azerbaijan과 Tadzhikistan에 각기 1개씩 있으며, 10개의 民族地域들은 모두 RSFSR에 위치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15개의 연방공화국들 중에서 소위 소비에트 中央아시아에 속하는 공화국들에 韓國人們이 가장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지역들이 많다. 이제 이 각각에서 주요한 韩國人集團居住地域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Djarylgasinova 1968과 Stephan 1971을 종합하여 작성되었고, 人口의 규모는 이 두 文獻에 나타난 바의 1959년도와 1970년도의 소련 人口調查 결과에 의거한 韩國人的 수이다.)

*Uzbekistan (1971년 ; 151,000名)*

Tashkent(首都) (1959년 ; 96,155名)

Samarkand

Khorezem

Dzhum city

Charkhin urban settlement  
Fergana  
Kunrad Raion, Kara-Kalpak ASSR

*Kazakhstan*(1970년 ; 78, 000명)  
Alma-Ata(首都) (1959년 ; 20, 502名)  
Kzyl-Orda(1959년 ; 14, 300名)  
Taldy-Kurgan

*Kirghizia*(1959년 ; 3, 600名)  
Frunze(首都)

*Tadzhikistan*(1959년 ; 2, 400名)

*Turkmenistan*(1959년 ; 1, 900名)  
Ashkhabad(首都)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소비에트 中央아시아 중에서도 우즈베크스탄(Uzbekistan 또는 Uzbek SSR이라고도 함)에 가장 많은 한국인이 살고 있고, 國域別로 보면 타시켄트에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알마·아파, 크질·울다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세 國域(oblasts)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수만 해도 1959년도 소련 人口調查에 나타난 韓國人 총수 31. 4만명의 약 42%에 해당하는 약 13만명의 한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黑海의 북방에 위치한 아조프海(Sea of Azov) 근처의 Taganrog에도 약간의 한국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소비에트 中央아시아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및 中共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고, 파키스탄 및 印度의 캐슈미어地方과는 직접적으로 국경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극히 인접해 있다. 이 지역은 또한 北으로는 시베리아에 접하고 있고, 東으로는 몽고리아 북방의 사얀(Sayan)山脈과 東南의 天山山脈을 넘어 中共의 新疆省과 접하고 있다. 그리고 南쪽에는 파미르高原 및 힌두쿠시(Hindu Kush)山脈 등이 있어서 지세가 극히 험준하고, 西쪽으로는 카스피海에 접하고 있다. 이 中央亞細亞에는 아랄(Aral)海와 발하시(Balkhash)湖가 있고, 남쪽의 파미르高原, 天山山脈 및 힌두쿠시山脈에서 흘러 내리는 물은 中央아시아의 남부지역에 펼쳐진 砂漠 및 半砂漠 지역을 휘靄고 북쪽으로 흐르는 시르·다리아(Syr Darya)江과 아무·다리아(Amu

Darya)江을 통해 內海인 아랄海에 흘러 들어가서 강물의 한방울도 海洋에 까지 이르지는 않고 있다.

이 지역의 기온은 극히 내륙적이어서 여름에는 평균 기온이 平地에서 30~32도, 겨울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하 15~20도 정도이고, 降雨量은 극히 적어서 이 지역에는 전반적으로 100~120밀리의 우량밖에 없으며, 東南의 산악지방에는 400밀리 이상이 내리고 있다고 한다(玄圭煥 1967 : 964 참조). 이와 같이 여름에는 덥고 비가 적으며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겨울의 山頂의 눈이 여름의 뜨거운 태양열로 녹아내리면서 이루는 大河의 물은 이 지방의 농사에 거의 생명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강물들은 高山으로부터 비옥한 흙을 운반해 올 뿐만 아니라 여름에 滿水가 되어 흘러 내리는 눈, 녹은 물로 남부 중앙아시아의 사막 및 반사막지역의 황무지들을 개간할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 이와 같은 황무지들을 개간하고 大河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灌溉用 水路體系를 건설하는 데에 이곳의 韓國人們이 중요한 공헌을 한 것 같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지리적인 그리고 기후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이곳 중앙아시아의 농업은 거의 전적으로 灌溉水에만 의존하고 있다. 中央아시아 특유의 지리적·기후적인 조건으로 이 지역에는 常綠의 森林이 거의 없고 山麓의 일부나 沿岸에 잡초들이 자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련의 전 영토 중에서도 인구가 극히 밀집해 있고 工業의 중심지들인 유럽지역과 아직도 광물을 포함하는 지하자원 외에는 불모의 황무지가 대부분인 시베리아를 포함하는 동부지방에 비한다면 中央아시아 지역은 소련의 중요한 농업생산지역이기도 하다. 中央아시아의 自然條件은 棉花栽培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목화도 이 지역의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이제 中央아시아 農業의 기본형태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玄圭煥 1967 : 965 참조).

- ① 灌溉農業 : 관계체계 없이는 영농이 거의 불가능한 관계로, 자연환경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관개시설이 잘 되어 있다.
- ② 非灌水農業 : 총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灌水農業이지만, 강우량이 많은 평지에서는 이에 적합한 粒穀物을 경작하고 있다.
- ③ 平原牧畜 : 건조한 草原과 平地沙漠에서는 이에 적합한 綿羊과 駱駝의 사육을 주로 하고 있다.
- ④ 山地牧畜 : 산악지방에서도 이에 적합한 有角家畜, 山羊 및 綿羊의 사

육을 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中央아시아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들 근처에는  
파수원들이 많고 양잠업도 아주 성한 것 같다.

이제 中央아시아의 5개 共和國 중에서도 韓國人們이 가장 집중적으로 많  
이 살고 있는 우즈베크스탄(Uzbekistan)과 까자흐스탄(Kazakhstan)의 자연  
환경을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이 두 지역에 관한 記述은 주로  
Stateman's Year-Book, 1975~76]에 실려 있는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  
었음을 밝혀 둔다.)

#### 〈우즈베크스탄〉

소련에서 한국人们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共和國인 우즈베크스탄은 北으  
로는 까자흐스탄, 東으로는 끼르기지아(Kirghizia)와 타드쥐크스탄(Tad-  
zhikistan), 南으로는 소련의 국경선을 넘어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에,  
그리고 西쪽으로는 뚜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과 접해 있다. 19세기  
후반에 러시아人们이 몰려오기까지에는 이곳 中央아시아지역의 지배적인 民  
族이었던 우즈베크人(Uzbeks)은 이 共和國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면적은 447,400평방 킬로미터이며 人口는 1974년 1월 현재로 13,289,  
000명으로 그 중 37%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首都인 타시켄트에는 통계  
적으로 보아 韓國人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뒤에 언급  
하겠지만 1961년에 소련의 民俗學者 샤릴가시노바가 韓國人 集團 居住地域  
을 현지조사한 사마르칸드(Samarkand)는 이 共和國에서 두번째로 큰 都市  
이기도 하다.

우즈베크스탄은 거대한 규모의 灌溉體系에 기초한 集約農耕지역으로도 유  
명하나 이 곳은 특히 소련의 주요한 棉花栽培地로 세계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의 단지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 지역의 灌溉水路들은 대체  
로 1940년대에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한국人们이 이미 이곳에 도착  
하여 수로공사에도 많이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화 이외에도 과일,  
양잠 및 쌀은 이 지역의 주요 품목을 이루고 있다.

우즈베크스탄의 西部는 사막 및 반사막지역으로 牧畜을 주로 한다. 1973년  
에는 우즈베크스탄 전체로 보아 1,015개의 集團農場(kolkhoz)과 445개의 國  
營農場(sovkhoz)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의 농업생산은 소련 전체에

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耕作은 현재에는 거의 기계화되었고 심지어 목화따기도 46% 이상이 기계화되었을 정도에 이르고 있다.

농산물의 수많은 품목중에서 목화와 쌀 생산은 우즈베크스탄을 대표할 만한 품목인 것 같다. 즉 소련 전체에서 총 목화 생산량의 67%가, 그리고 총 쌀 생산량의 50%가 이곳 우즈베크스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를 말해주고 있다.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페가나 盆地(Ferghana Valley) 제라브샨(Zeravshan), 타시켄트(Tashkent) 및 호레즈(Khorezm)은 비교적 기후가 온화하고, 강우량이 많은 비옥한 오아시스 지역으로 목화, 과일, 양잠 및 쌀 생산이 극히 활발한 지역이기도 하다.

#### 〈까자흐스탄〉

까자흐스탄은, 1937년에 소련의 極東지역으로부터 強制移送計劃으로 철도로 실려온 韓國人들이 지금의 首都인 알마·아따 동북부에 위치한 우슈또베라는 곳에 처음으로 버려짐으로서 中央아시아에의 대규모의 한국인 집단거주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우슈또베를 기점으로 하여 점차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간 韓國人們은 지금은 이 까자흐스탄의 알마·아따 및 크질·올다(Kzyl-Orda)에도 대규모의 한국인촌을 이루고 있다.

까자흐스탄은 中央아시아의 5개 共和國中 西南部에 위치한 4개 공화국을 제외한 거의 전역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넓이는 나머지 4개의 中央아시아 共和國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큰 2,717,300 평방 킬로미터에 달하고 있다. 인접한 지역을 보면 西쪽으로는 카스피(Caspian)海와 RSFSR, 東쪽으로는 中共의 新疆省, 北쪽으로는 RSFSR, 그리고 南쪽으로는 우즈베크스탄과 키르기지아(Kirghizia)共和國과 접하고 있다. 까자흐스탄은 東西간이 거의 3,000km에 달하며 南北간이 1,500km 가 넘는다는 점에서도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인구는 1974년 1월 현재로 1,393만명에 달하고 그중 약 53%가 도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즈베크스탄에 비하면 영토는 훨씬 더 넓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의 비율이 약 16%나 더 많다는 것도 특기할만하다. 民族集團별로 보면 土着民보다는 러시아인이 더 많아 42%를 차지하고, 까자흐人(Kazakhs)이 32.6%를, 그리고 우크라이나人(Ukrainians)이 7.2%를 점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까자흐스탄은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100개가 넘는 民族集團이 들어와 살고 있어서 마치 民族集團들의 시장을 이루고 있다. 원래 牧畜을 하던 遊牧民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까자흐스탄은 소련 경제구조의 변화와 자연자원의 잠재력 및 農業의 機械化에 따라 이제는 곡물 및 목화의 생산, 그리고 공업용 농작물의 주생산지로 변모되었다. 1973년의 통계로는 소련 총경작지의 15%를 점하고 있는 이 까자흐스탄의 大平原에는 담배, 고무 등이 많이 생산되고, 과수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목축 특히 羊의 사육은 대규모여서 良質의 毛가 생산되고 있다. 1974년 1월 통계로는 437개의 集團農場 및 1,783개의 國營農場이 있다. 이는 우즈베크스탄에 비하면 집단농장이 훨씬 적은 반면에 국영농장이 훨씬 많은 것인바, 아마도 이것은 광활한 황무지를 국영으로 개간하여 경작지로 전환시키려는 소련당국의 개발계획의 결과인 것 같다. 농사에는 기계화의 수준이 아주 높아서 심지어는 살충제 및 비료 뿌리기 그리고 과일의 가루밭이 시키기 등은 비행기로 작업을 하는 등 농사에 비행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 III. 蘇聯의 韓國人們 : 人口學的인 檢討

소련의 영토내에 과연 얼마나 많은 韓國人이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길은 없다. 이것은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함께 부분적으로는 소련 당국 자체로서도 이 “韓國人”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 보아서는 우선 가장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는 소련 당국의 1959년과 1970년도 人口調查에 나타난 결과를 들 수 있겠다. 本研究에서는 蘇聯의 韓國人社會에 관한 각종 논문들(주로 R. Sh. Djarylgasinova 1968; J.J. Stephan 1971; G. Ginsburgs & H. Ginsburgs 1977을 참조)에 인용된 바의 두번에 걸친 人口調查 결과에 의거하여 韓國人의 분포상황을 재구성해 보았다. 이 人口調查에 나타난 “韓國人”이란 조사대상자들이 자신을 “韓國人”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韓國人 1世, 2世 또는 3世들이 자신들을 이미 러시아人 또는 다른 民族集團의 성원으로 간주하여 이 통계에서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통계적으로 나타난 수치

보다는 훨씬 더 많은 “韓國系 소련人” 또는 “소련系 韓國人”이 소련 영토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1959년도와 1970년도의 人口調查에 나타난 결과를 대조하면서 소련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분포상황을 알아 보기로 하자 (表1 참조). 우리는 아래에서, 中央아시아의 한국인에 관한 통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혹 RSFSR과 그 외의 다른 지역을 대비시킬 것이다. 이것은 소련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中央아시아와 RSFSR의 極東地域(Soviet Far East)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表 1. 蘇聯의 韓國人數(人口調查 결과)

	1959년도 (%)	1970년도 (%)
소련전체	313,735명 (100.0)	357,507명 (100.0)
RSFSR	91,000 (29.0)	101,369 (28.4)
RSFSR을 제외한 기타 지역	222,735* (71.0)	256,138 (71.6)

資料 : Djarylgasinova 1968 및 Ginsburgs and Ginsburgs 1977.

\*표의 수치는 RSFSR의 한국인이 91,000명이라는 데에 근거한 것임이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1970년도 소련의 人口調查에 나타난 바로는 한국인의 총수는 35만 7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그에 앞서 1959년에 실시된 조사에 나타난 한국인 수 보다 약 14%의 자연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중 소련의 極東地域을 포함하는 RSFSR에 10만 1천명 (28.4%)이 살고 中央아시아를 포함하는 그 외의 지역에 25만 6천여명 (71.6%)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SFSR과 其他 지역 간의 비율은 두 조사기간에 별다른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다.

表 2. 蘇領 極東地域의 韓國人 分布(1970년도)

地 域	韓 國 人 數	%
RSFSR 全體	101,369명	100.0
사 할 린	35,396	34.9
하 바 로 브 스 크	19,249	19.0
沿 海 州 地 域	8,003	7.9
캄 차 카	2,484	2.5
코 리 약	276	0.3
極 東 地 域 全 體	65,408	64.5

資料 : Ginsburgs & Ginsburgs 1977.

그러면 이제 잠깐 RSFSR에서 한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을 좀더 확대해서 한국인의 분포상황을 살펴 보기로 하자. 表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RSFSR에 살고 있는 전체 한국인의 64.5%에 해당하는 6만 5천여명이 極東地域에 살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할린(Sakhalinskaya Oblast)에 가장 많아 RSFSR 전체 한국인의 3분의 1이 넘는 3만 5천여명이 살고, 하바로브스크(Khabarovskii Krai)에는 1만 9천여명이 살고 있다. 그 외에도 沿海州地域(Primorskii Krai)에 8천여명, 카마차카(Kamchatskaya Oblast)에 2,400여명, 그리고 코리야 民族管區(Koryakskii Natsionalnyi Okrug)에는 겨우 276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로 미루어 보아, RSFSR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거의 3분의 1 이상이 사할린島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또 3분의 1 가량이 極東地域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 가량의 한국인이 모스크바를 포함하는 RSFSR의 유롭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 같다. 그중 사할린島에 살고 있는 3만 5천여명의 한국인은 아마도 日帝의 노동력으로 끌려가서 미처 귀환하지 못하고 소련 당국에 의하여 억류된 상태로 살고 있는 인구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으로 소련의 RSFSR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 중에서 中央아시아에 거주하는 人口分布를 살펴보기로 하자. 表3에 나타난 바와 같이 RSFSR을 제외한 소련의 기타 지역에는 25만 6천여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지만 그 대부분인 93%가 中央아시아에 속하는 5개의 共和國에 살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국인의 수는 거의 미

表 3. 中央아시아의 韓國人 分布(1970년도)

地 域	韓 國 人 數	%
RSFSR 을 제외한 기타 지역	256,138	100.0
우즈베크스탄	151,000	59.0
까자흐스탄	78,000	30.5
끼르기지아	4,186*	1.6
파드쥐크스탄	2,790*	1.1
뚜르크메니아	2,209*	0.9
中 央 亞 し 亞 全 體	238,185	93.0

資料 : Stephan 1971 및 Djarylgasinova 1968.

\*표의 수치는 1970년도 통계를 구할 수가 없어서 1959년도의 수치에서 소련전체의 14% 자연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 산출한 수치임.

미한 정도에 불과하다. 中央아시아 중에도 우즈베크스탄에 가장 많아서, RSFSR 이외의 기타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수의 무려 59%에 해당하는 15만 1천명에 달하고 있다. 나머지 약 3분의 1(30.5%)에 육박하는 7만 8천여 명이 까자흐스탄에 살고, 그 외의 세 共和國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수는 2~4천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1959년도의 人口調查에서 中央아시아 5개 共和國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수가 220,400명으로 나타나 있어서, 이를 1970년도의 총계와 비교하면 약 8%의 자연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59년—1970년간의 소련 전체의 한국인 자연증가율 14%에 비하면 훨씬 낮은 비율이다. 왜 이렇게 낮은지를 분명히 밝혀낼 수가 없지만, 아마도 많은 한국인이 모스크바 등지의 소련 중심부로 옮겨 갔거나 아니면 移住民 당사자들 및 그들의 第2世, 第3世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한국인으로 규정하지 않는 데에서 연유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中央아시아의 社會·文化的인 조건이 수많은 民族集團들간의 활발한 상호작용 또는 民族過程(ethnic process)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도가니”(melting pot)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해가 잘만도 하다.

이제 위의 表 2와 表 3을 종합해 보면 소련에 살고 있는 357,000여명의 한국인들은 크게 나누어서 中央아시아와 極東地域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더욱 자세히 들여다 보면 中央아시아의 우즈베크스탄에 가장 많이 살고(소련의 전체 한국인의 42.2%), 그 다음이 까자흐스탄(21.8%)으로 이 두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총수는 소련에 살고 있는 전체 한국인의 무려 64%를 점하고 있다. 다른 한편 極東지역의 한국인들은 사할린島에 가장 많아서 소련 전체 한국인의 약 1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소련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사회에서 中央아시아가 점하고 있는 중요성은 더욱 분명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련의 극동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수는 소련 전체 한국인 수의 18.2%에 불과하고, 이에 비하여 中央아시아의 한국인은 전체의 66.6%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련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都市—農村別 人口分布와 男女의 性比를 알아 보기로 하자(表 4 참조). 이용가능한 資料는 단지 RSFSR 전체의 한국인에 관한 통계와, RSFSR을 제외한 기타지역의 한국인에 관한 것밖에 없어서 좁은 범위의 한국인 집단거주지역별 상황을 밝혀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RSFSR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64.5%가 소련의 極東地

表 4. 在蘇 韓國人の 居住地別 分布 및 性別 構成(1970년도)

	소련의 總人口	在蘇韓國人全體	RSFSR의 韓國人	RSFSR을 제외한 기타지역의 韓國人
都 市	56%	68%	77%	65%
農 村	44%	32%	23%	35%
男	46%	53%	63%	49%*
女	54%	47%	37%	51%*

資料 : Ginsburgs & Ginsburgs 1977에 사용된 수치에 의해 작성되었고 \*표의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RSFSR의 것을 알 수 있어서 추산되었다.

域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타지역의 경우에도 더욱 뚜렷하여 93%가 中央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韓國人集團居住地域의 人口構造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表 4에 의거하여 우선 居住地別로 살펴보면, 소련의 한국인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3분의 2 이상이 도시지역(68%)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소련의 전체 人口에서 나타나는 도시거주자의 비율(56%)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다시 RSFSR과 其他 지역의 들로 나누어 보면, RSFSR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간에는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77%)이 기타지역(65%)에서보다 더욱 현저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RSFSR에서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사할린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가장 심하여 무려 84%가 도시에 거주(Ginsburgs & Ginsburgs 1977 : 946—965 참조)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RSFSR의 유롭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대체로 非農業 都市型 專門職에 종사하는 사람들일 것으로 생각한다면 RSFSR의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높은 비율은 이해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서 기타지역의 한국인, 특히 中央아시아의 한국인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또한 비록 도시 및 도시근교에 살더라도 농업과 관련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서 도시—농촌간의 人口의 차이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모두 소련의 총인구에서 나타난 도시—농촌 인구의 차이보다는 더 커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男女의 性比를 보면 在蘇 韓國人 전체로는 53 대 47로 男子가 6% 정도 더 많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것은 소련 전체 인구의 性比 46대 54와는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노동력이 있는 장정들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移民社會의 일반적인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또한 거의 반세기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民族間의 결혼도 많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런 경우에 女性은 男性의 집단을 따르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민족집단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강한 경향에서 나온 결과인지도 모른다. 在蘇 韓國人을 다시 두 그룹으로 나누면 RSFSR의 한국인들간의 性比는 63대 37로 남자가 훨씬 많고, 이에 반해서 中央아시아가 지배적인 기타지역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49대 51로 여자가 더 많았다. 아마도 이것은 RSFSR의 한국인들이 주로 도시에 살고 있으며, 기타지역 특히 中央아시아의 한국인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나타난 현상인 것 같다. 즉 농업에는 男性의 노동력에 못지 않게 여성의 노동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뒤에서 다루어지겠지만, 中央아시아의 韓國人 社會에는 민족적인 아이덴티티 내지는 한국인들간의 응집력이 높아서 결혼도 한국인들간에 맺어지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과 함께 이해되어야 할 통계수치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1970년 소련 人口調查에 나타난 在蘇 韓國人 總數인 35만 7천여명은 적어도 하나의 自治領(autonomous region)을 갖지 않은 소련의 수많은 少數民族들 중에서 독일人(1,846,000명), 폴란드人(1,167,000명)에 이어 在蘇 韓國人이 세번째로 가장 人口가 많은 少數民族集團으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두고 싶다. (*Sovetskaia etnografia*, 1971, No. 4, pp. 8—30. Table 14 참조.)

#### IV. 移住經路 및 定着過程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련의 中央아시아에는 현재 약 24만명에 가까운 韓國人이 살고 있다. 그러면 그들은 언제 어떤 경로를 거쳐서 祖國을 떠나 그렇게도 먼 곳에까지 가서 정착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에 대답하기 전에 우선 이곳 中央아시아에 대규모의 한국인 定着村이 생기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련에 한국인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물론 북단의 국경을 넘어 가까이 있는 極東地域이었다. 그 시기는 18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의 대부분은 두만강을 건너 소련의 극동지역으로 또는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넘어가 어로, 수렵 및 농사를 하는 계절적인 이주민들이었고, 점차 그들은 그지

역에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 후 1869년 한반도를 휩쓸 대기군으로 1870년대에 들어 와서는 한국인들이 대규모로 소련의 沿海州 지역으로 이주하여 1906년에 이르러서는 34,000여명이 沿海州에 살고 있었고, 그보다 8년 후인 1914년에는 64,000여명으로 증가되었는데 그 중 약 2만명 이상이 이미 소련의 시민권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Stephan 1971 : 139 ; 이 통계는 Kim Syn Khva 1965에서 인용한 것임). 또 다른 자료는 1906년에서 1907년 사이에 소련의 우수리域域(Ussuri district)에는 한국농업노동자들이 약 5만명이 살고 있었고, 1915년에는 그 숫자자가 9만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U.N., *Population Bulletin*, No. 1 : 27).

朝鮮時代가 막을 내리고 日帝時代로 접어 들면서 社會・政治的의 不安定으로 인한 망명자의 집단이 점차 증가되어 1910년대 후반기 이래로 급작스럽게 韓國人社會의 규모가 커진 것 같다. 즉 1914년에 6만 4천명이던 것이 1926년의 소련 人口調查에는 172,000명으로 나타났고(U.N., *ibid*), 1927년의 비 공식 집계에는 250,000의 한국인이 주로 소련의 極東地域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ephan 1971 : 140). 그중에 약 반수의 한국인들이 이미 소련의 市民權을 획득(U.N., *ibid.*)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공식적인 통계에는 한국인의 수가 훨씬 낮게 반영되었을 것임이 틀림없다. 이것은 1939년의 소련 人口調查에 한국인의 수가 18만명 밖에 되지 않았다(U.N., *ibid.*)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1920년대에는 매년 두만장을 넘어 소련으로 이주하는 한국인의 수가 평균 1만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극동지역의 한국인들 대부분은 농업노동자들이 있고 1936년의 통계로는 한국인 농민의 80%가 이미 집단농장에 속해 있었다고 한다(Ionova 1963 : 24 ; Stephan 1971 : 141에서 재인용).

다른 한편 1920년대 초반부터 극동지역의 한국인들은 소련의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여 1922년에는 1,000명 이상의 한국인이 모스크바에 살고 있었고, 1924년에는 우즈베크스탄의 수도인 타시켄트에 최초의 韓國人 콜호즈(Kolkhoz : 集團農場)가 결성되었고(丸毛 1965 : 105), 다시 1928년에는 까자흐스탄의 크질・올다에 韓國人 米穀耕作者들이 있었다(Kolarz 1954 : 42)는 것을 보면, 극동지역의 한국인들이 中央아시아로 强制移送 당하기 이미 십여년 전에 산발적으로 소규모의 韓國人 정착촌이 이 지역에 생긴 것 같다.

이와 같이 1930년대 초반까지 소련의 중앙아시아에로 이주해서 살고 있던 한국인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1937년에 소련의 極東地域에 거주하는 韓國人們은 中央아시아에로의 “強制移住”라는 하나의 되돌이킬 수 없는 운명에 직면하게 되었다. 무려 20여 만명이 극히 단시간내에 그렇게 먼 곳으로 강제이송되었다는 사실은 아마도 세계 역사상에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西方世界에서도, 독일 및 日本을 포함하는 反共 블록에서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비록 그런 정보는 갖고 있었겠지만 눈을 감고 있었다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런 대규모의 強制移送이 어떤 식으로 계획되었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자세히 밝힐 만한 자료는 소련당국이 아직 드러내놓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마도 이 사건의 예시적인 조짐은 강제이송이 실행되기 불과 수개월전인 1937년 4월 27일자 「프라우다」紙(Pravda)에 실린 “소련의 極東地域에서의 외국인에 의한 첨보활동”에 관한 기사인 것 같다. 이 기사에서 소련 당국은 극동지방에서 日本 첨보기관이 수많은 한국인 및 중국인 첨자들을 이용하여 군사시설 등을 포함하는 기관들에 침투,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비난을 펴부었다. 그후 이 신문은 약 10개월 동안 극동의 한국인 사회에 관해서 일체 침묵을 지켰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기간 내의 그해 가을에 수십만의 극동지역 거주 한국인들이 中央아시아로 강제이송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그 후 1937년 12월 20일자로 「프라우다」紙는 N.K.V.D. (소련 內務省)의 책임자 및 관계자들, 그리고 極東鐵道(Far Eastern Railway)의 관계자들에게 “수송분야”에서 정부의 과업을 도법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완수하였다는 찬사를 보내는, 눈에 잘 띄지도 않을 만한 짤막한 성명서를 기사로 실었다. (Kolarz 1954 : 38—39에 나타난 자료로 재구성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한국인 강제이동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적어도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첫 발표인 것 같다.

1937년의 한국인 대규모 강제이송 “작전”的 수행과정을 자세히 알아볼 만한 자료는 불행히도 아직 별로 없다. 이제 이용 가능한 자료를 동원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가능한 대로 재구성해 보기로 하자.

이 強制移送 계획으로 끌려가던 도중 뜻하지 않은 열차전복사고로 극적으로 탈출하여 生還할 수 있었던 金振協氏의 체험담(이것은 玄圭煥氏에 의

하여 金氏의 6촌 동생으로부터 입수한 것을 참조하였음；玄圭煥 1967 : 967—969)은 그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상세히 알려 주고 있다. 極東地域의 「포세트」(Poset)區 鹿洞 上所에 살고 있었던 金氏(당시 45세)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1937년 9월에 수학을 하고 나서 아직 탈곡도 하기 전에 부락 내에 모든 한국 사람들을 집합시켜 놓고 集團移住 명령을 통고했다고 한다. “너무나도 돌발적인 명령이었던 만큼 그 때까지 살던 집도 처분하거나 가산을 정리할 틈도 주지 않고(가산처리를 일부러 못하도록 명령이 내리기도 했었다고 한다.) 간단한 보따리를 하나씩을 들고 지정된 貨物車에 짐짝처럼 실려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곳으로 왔다는 것이다”(吳基元 1966 : 327). 이 때 金氏가 소력의 管憲들이 지시하는 대로 운명을 맡기고 승차를 강요당한 한국인 수송 전담의 특별열차는 100여 輛이 연결되어 있었고, 전부 한국인으로 가득차 있었다고 한다. 이 열차가 「하바로브스크」驛을 출발한지 열마되지 않아 탈선·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다수의 한국인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金氏는 바로 이 사고를 틈타서 소련의 管憲(계·폐·우)이 순시할 때 시체로 가장하고 숨을 죽이고 엎드려 있다가 관헌이 사라진 후에 극적으로 도주해서 살아 나온 분이다.

이렇게 하여 특별열차에 짐짝처럼 실려서 極東地域을 떠나 中央아시아에 당도한 곳은 까자흐스탄의 우슈또베(Ushutobe)라는 곳이었다. 이들이 특별열차를 이용한 강제이송계획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철로로 최단 거리를 더듬어 보면, 이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루트를 거쳐 중앙아시아에 도착한 것 같다. 즉 하바로브스크(Khabarovsk)를 떠난 한국인들을 실은 열차는 소련의 RSFRS의 남단을 가로 질러서 지금의中共 및 몽고리아 북쪽 국경선을 위를 따라 서쪽으로 향하는 코스를 달렸음이 틀림없다. 그 열차가 지나는 몇 개의 주요 도읍들을 순서대로 열거하면, 시마노브스크(Shimano-vsk), 스코보로디노(Skovorodino), 모고차(Mogocha), 치타(Chita), 우란·우데(Ulan Ude)를 거쳐 몽고리아 바이칼(Baykal)湖의 남단을 지났고, 다시 이루크츠크(Irkutsk), 크拉斯노야르스크(Krasnoyarsk), 테이쉐트(Tayshet), 노보시비르스크(Novosibirsk)에 이르러서 남쪽으로 꺾어져서 이제 中央아시아 깊숙히 들어오게 되는데, 세미팔라틴스크(Semipalatinsk), 아야구즈(Ayaguz)를 거쳐서 발하시(Balkhasi)湖의 동쪽 끝을 지나 아야구즈와 알마아파(Alma-Ata)의 중간 쯤에 위치한 우슈또베에 당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슈또베는 中共과 국경선을 이루고 있는 天山山脈에서 발하시湖로 향해 흘러 내려오는 까라마루(Karamar)河와 이 철도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人家 하나 없는 황량한 半砂漠의 草原地帶”(玄圭煥 1967 : 967)였다고 한다.

우슈또베라는 곳은 행정구역상으로 까자흐스탄의 동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1937년 가을 또는 초겨울에 바로 이 외딴 곳에서 中央아시아에 첫발을 디딘 수십만의 韓國人們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아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소련족의 견해를 반영한 것 같은 연구들은 이들 한국인 이주민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을 제공해 주었고, 집을 짓기 위한 재료, 가축 및 농기구들”을 제공해 준 데 대하여 소련 당국을 친양하고 있다(Kim Syn Khva 1965 : 228과 Ionova 1963 : 24 ; Stephan 1971 : 149의 註 23에서 재인용함).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당시의 상황은 이들 한국인들에게는 소련 당국의 처사를 친양할 성질의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이 자의적인 이주가 아니라 강제적인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무료의 교통편”이란 결코 이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지는 않다. 그대신 사실상 그들은 지금까지 사람도 살지 않는 황무지에 “내팽개쳐진” 상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우슈또베를 거점으로 하여 모여 살던 한국인들은,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간 후인지는 자세히 알 길이 없지만, 철로를 따라 다시 까자흐스탄의 다른 지역들 즉 알마아따, 크질·올다; 우즈베크스탄의 타시켄트, 사마르칸드, 펠가나, 부하라, 우르겐지; 따드쥐크스탄의 두샨베; 끼르기지아의 후룬체; 그리고 뚜르크메니아의 아시하바드 等 주로 도시지역으로 흘러 들어 가면서 中央아시아의 넓은 지역으로 확산된 것 같다. 이들 한국인 이주민들은 極東地方에 있을 때에도 주로 농업에 종사했었던 경험을 기초로 하여 中央아시아에 와서도 살 길을 농사(특히 벼농사)에서 찾을 수 밖에 없었다. 移民社會가 혼히 겪게 되는 社會過程으로 社會解體 현상을 들 수 있겠으나, 초기의 한국인 이주민들에게는 그런 현상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던 것 같다. 비록 그들은 極東地域에 있을 때에도 역시 고국을 떠난 이주민이었으나, 그런대로 뿌리를 내리고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해 왔을 것이다. 그러나 中央아시아라는 전혀 새로운 지역 및 문화적인 풍토는 전통적인 사회구조의 기초를 뒤흔들어 놓았고, 인간관계의 재조직을 요구하였다. 만약 이들 한국인 이주민들이 처음으로 발을 내 디던 곳이 생활상태가 풍족하고 생계를 꾸려 나갈 좋

은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기성의 도시였다면, 한국인들은 더욱 쉽게 그 이 국적인 사회에로 용해되어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계가 막연하고 의지할 데도 없었던 이들 이주민들은 다른 분야에 주의를 돌릴 여유도 없이 바로 황무지를 개간하여 우선 식생활을 해결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이 가져간 쌀농사 위주의 韓國文化는 中央아시아의 자연환경적인 조건과 합쳐져서 그들로 하여금 소련의 中央아시아에서 결과적으로 쌀농사의 주역을 맡게끔 하는 바탕이 되었다. 조상들이 “굶어 죽어도 種子벼는 베고 죽는다”(吳基元 1966 : 327)고 했던 속담대로, 그들은 移住 당시에 소련 官憲들이 곡물을 일체 가져 가지 못하게 했던 정책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종자 벼씨를 몰래 숨겨서 중앙아시아로 가져 갔다. 한편 우슈또베를 포함한 中央아시아의 草原地帶는 비록 황무지로 벼려져 있던 땅이었지만, 토지가 비옥하여 비료 없이도 훌륭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오직 생계유지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 이들 한국인 이주민들은 한 해 두해 농사를 거듭하면서 생계의 기틀을 잡았고, 더 많은 황무지를 개간하여 경작지를 넓혀 갔던 것 같다. 이 中央아시아 지역의 농사는, 사막 또는 半砂漠(semi-desert)이라는 불리한 지리적 및 기후적인 조건으로, 주로 인공적인 灌溉에 의거해야만 하였다. 앞에서도 이미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1930년대에서 1950년대 초반에 걸친 기간에 소련은 이지역에 관개를 위한 水路의 건설에 총력을 기울였던 바, 이런 공사들에 한국인 이주민들도 물론 많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관개체계의 확립이 황무지 개간의 가능성을 열어 주어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中央아시아의 韓國人們을 이야기할 때 흔히 벼농사 개척의 선구자로 추켜 세울 정도로(Djarylgasinova 1968 : 29 ; 丸毛 忍 1965 : 106 참조) 벼농사와 이들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中央아시아에서 쌀농사의 주역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확립하는 데에는 물론 황무지의 개간이라는 고통과 고난이 수반되었지만 그 지역의 사회·문화적인 조건들을 배경으로 하여 한국인들에 의한 쌀농사가 하나의 문화적인 혁신(innovation)으로 등장했기 때문인 것 같다. 예로부터 中央아시아에 살고 있던 여러 土着民族들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관개체계가 발달되지 않은

당시의 상황과 함께 견조한 풍토적인 조건들로 인하여 논벼를 제배할 줄은 몰랐고, 단지 수확률이 비교적 낮은 “발벼”재배에만 의거하였다. 이로 인하여 쌀 생산량이 적어서 비록 쌀을 주식으로 하는 그들이지만 쌀은 구하기 어려운 귀한 식량으로 간주되었고, “生日이나 귀한 손님이 왔을 때가 아니고는 쌀밥을 해 먹지 못했다고 한다”(吳基元 1966 : 328).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쌀, 그리고 값이 비싼 쌀을 대량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한국인 농부들이 내던져 버려진 곳은 바로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지역이었다.

강제 이주된 한국인들은 소련 당국의 처사에 반발하여 조직적인 항거를 한 것 같지는 않다. 그 대신에 그들은 모든 힘을 그들 자신의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쏟았다. 이 中央아시아에 도착한 지 3년 만에 그들은 관개수로를 건설하였고, 그들이 가져온 볍씨로 본격적인 벼농사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Stephan 1971 : 143). 물론 그들이 시작한 벼농사는 “논벼”였다. 발벼에 비해 수확량이 많은 논벼에 대대로 숙달되어 온 그들은 中央아시아의 광활한 황무지를 개간하여, 비옥한 논으로 전환시켰고 쌀농사에 박차를 가하였다. 쌀이 귀한 곳에서 쌀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던 이 한국인 이주민들은 빠른 시간내에 생활 터전을 굳힐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 中央아시아의 다른 토착민들과도 공존할 수 있는 위치를 빠른 시일내에 굳힌 것 같다.

그들이 中央아시아에서 쌀농사의 주역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원래 소련 당국의 한국인 강제이주정책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극동지역 한국인들의 쌀농사법을 중앙아시아에 보급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있으나(翁義英 1980 : 85),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 줄 증거는 전혀 없거나, 아니면 아주 약한 것 같다. 극동지역의 한국인들과 함께 中國人們도 동시에 내륙지방으로 강제이주되었으며, 쌀농사를 전하기 위해 수십만 규모의 강제 이주정책이 계획된 것 같지는 않다. 그 대신에 中央아시아에서의 한국인에 의한 쌀농사 개척은 이 강제이주계획에서 의도되지 않은 하나의 부산물이었으며 中央아시아의 토착문화와 한국인 이주민이 가져간 한국의 米作文化의 상호작용 과정의 결과로 생겨난 하나의 文化的인 綜合(synthesis)으로 간주되어도 좋겠다.

中央아시아의 첫 기착지인 우슈또베를 중심으로 생활기반을 어느 정도 뒀은 한국인 이주민들은 점차로 中央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래 그들을 극동지역으로부터 강제로 이주시킨 것이 安保上の

문제였던지라 소련 당국은 그들을 자유롭게 옮겨 가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條件附公民證”을 발급해 주면서 주거지역을 제한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소련 당국은 이 조건부공민증을 가진 한국인들에게는 소련軍에 入隊하지도 못하게 제한하였다. 그 후 1951년에야 한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민족차별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정식의 公民證이 발급되었다고 한다(吳基元 1966 : 328).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中央아시아의 한국인들 대부분은 1937년에 강제이송된 한국인들 및 그들의 자손들이고, 정상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移民에서처럼, 1937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주민이 첨가된 것 같지는 않다. 물론 1937년 이전에도 극히 작은 규모의 한국인들이, 어떤 계기로 흘러들었는지는 몰라도, 中央아시아 지역에 약간 있었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지적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아조브(Azov)海 연안의 한국인 집단거주지역이었다. 이들은 中央아시아로 옮겨진 한국인 사회를 통해서 가장 불행한 경험을 한 사례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소련의 자료(*Sovetskaya Yustitsiya*, July 10th, 1931, pp. 18—19)를 인용하여 Kolarz(1954 : 42)가 소개한 바에 따라이 지역 한국인들의 경험을 잠간 재구성해 보기로 하자.

이들이 黑海 북방의 아조브海 근처에 있는 Taganrog지역으로 옮겨진 것은 극동지역의 한국인들을 대규모로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킨 1937년보다 훨씬 전인 아마도 1920년대 말엽인 것 같다. 즉 소련의 농업협동화 작업이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었을 당시에 한국인 이주민들은 이 Taganrog지역에 이미 발전된 형태의 집단농장(advanced type of collective farm)을 설립했다고 한다. 아마도 이것은 그 지역의 부농들(kulaks)에 테러를 가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결파적으로 그 지역의 경제체계 및 토지소유제도를 파괴하기 위한 소련 당국의 앞잡이로 이들 한국인 이주민들이 이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지역의 Don Cossack이라는 마을 근처에 세운 “Don-Ris”라는 한국인 集團農場은 소련 당국의 지원으로 가능했던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농장의 한국인 공산당원 여러명이 부농들의 정치적·경제적인 기초를 파괴하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지역의 토착민들로부터 소련 당국의 하수인들이라는 분노를 사기 시작했다. 결국 소련 전역에 확산된 계급투쟁 캠페인이 이 지역에서는 민족집단간의 분쟁으로 번졌고, 토착민족들의 소련 당국에 의한 불만은 이 불행한 한국인 이주민들에로

돌려졌다. 소련 당국에 협조하여 혹시 부농들로부터 몰수된 토지를 얼마간 배당받을 것을 기대했던 한국인들은 토착민족들에게 쫓겨나서 결국 여러 지역으로 흘어져 버렸던 것 같다. 비록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인 집단농장은 깨어졌지만, 아직도 이 Taganrog 지역에 한국인들이 떠러 살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Stephan 1971 : 143) 아마도 그런 사건의 흔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와 같은 사건을 제외한다면——아마도 이와 유사한 몇몇 사례가 있을지도 모르지만——中央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한국인들은, 비록 그들이 정착과정에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감수했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낯선 지리적, 사회·문화적인 풍토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들이 개간한 땅에서 생산해 낸 쌀 및 기타 농작물들은 그 지역의 토착민들 뿐만 아니라 소련 전체에 극히 유익한 보탬이 되었고, 또한 이 한국인 사회들도 중앙아시아의 諸民族集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들간에 잘 받아 들여지게 되었던 것 같다.

이제 우리는 지난 반세기 가까운 기간에 中央아시아의 韓國人社會에서 진행된 文化過程의 결과로 나타난 社會·文化的인 現象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 V. 中央아시아의 韓國文化

1937년 강제이주계획으로 極東地域에서 中央아시아로 이동된 한국인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그곳의 한국인들은 그 규모를 약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金圭澤 1978 : 上). 이들이 그곳에 뿌리를 내린 지는 벌써 반세기가 가까워 오고, 그간 많은 한국인들이 중앙아시아를 떠나기도 했지만 그 대부분은 여전히 남아서 중앙아시아 속의 “韓國人社會들”을 이루고 있다.

처음에는 우선 농사에 손을 대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직업분야도 다양해져서 노동자, 전문기술직 및 화이트 칼라職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소련의 한국인들이 농촌보다는 주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전체의 약 3분의 2(소련 전체로는 68%이고 RFSR을 제외한 기타지역에서는 65%)에 달하고 있음은 직업의 다양화 및 전

문화의 가능성 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중앙아시아의 한국인 사회에 관한 대표적인 직업을 든다면 역시 農業인 것 같다. 물론 공산치하에서 그들의 농업은 自營農이 아니라 集團農場(kolkhoz) 또는 國營農場(sovkhoz)에서 그들은 작업반원으로 일하며 농장으로부터 결산분배를 받는 형식으로 생활해 나가고 있다. 물론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지만 농장의 규모가 커지고 농업기술의 발달로 농장에서 교사, 의사, 농업기사, 기계공, 트럭운전사, 회계원 등의 농업과 관련된 전문직에 종사하는 한국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中央아시아의 한국인들은 특히 米作과 야채재배의 명수로 알려져 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米作民族인 우즈베크人 및 까자흐人과 같은 中央아시아의 土着民들을 능가할 정도로 한국인들은 이 지역 米作의 主役을 맡게 되었다. 그들은 남쪽의 高山地帶에서 북쪽의 발하시湖 및 아랄海로 흘러 들어가는 가라다루河, 이리河, 시르다리아河, 암다리아河 등의 유역에 관개가 가능한 지역에 정착하면서 밭벼가 아닌 수확량이 더 많은 논벼 경작기술을 중앙아시아에 뿌리내리기 시작하였다.

정착 초기에 황무지를 개간하여 설립된 한국인 집단농장들은 일반 개척지의 폴호즈[集團農場]에 제공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련 당국으로부터 면세, 기계, 농기구, 건축재료의 공급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기반을 뒀을 수가 있었다. 특히 그들은 土着民들이 손도 못대는 습지 및 河床을 개간하여 옥토를 만드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다. 1950年代까지는 쌀이 한국인들의 主作物이었으나 60年代에 들어서면서 木花를 위시한 공예작품들에로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목화재배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인 콜호즈의 경우 40내지 50馬力의 대형수확기까지 동원되어 수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는 쌓아 놓은 목화 뭉치들로 흰 산을 이룰 정도라고 한다(丸毛 1965 : 106).

中央아시아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옮겨 간 韓國文化의 흔적을 가장 집중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아마도 그들이 집단촌을 이루고 살고 있는 集團農場 즉 콜호즈일 것 같다. 비록 한국인 주민들 중에는 농촌보다 도시에 더 많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자기 다양한 분야의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민족집단의 성원들과 접촉할 기회도 더 많아서 전통적인 문화요소들을 계속 유지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他民族集團들과는 구별될 만한 民族的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잘 단합된 韓國人社會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그들의 아이덴티티는 그들이 가져간 한국의 전통적인 文化要素들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제 中央아시아의 韓國人社會에서 한국문화의 여러가지 전통적인 요소들이 가장 농도 짙게 나타나고 있는 言語生活, 物質文化 및 文藝活動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와 중앙아시아의 土着文化와의 상호작용 및 그 결과의 일면을 재구성해 보기로 하자.

### ① 言語生活

中央아시아의 한국인들과 관련하여 가장 흥미있는 사실들 중의 하나가 그들이 자신들은 “高麗사람”이라고 부른다는 점이다(Djarylgasinova 1968 : 26). 그들이 자신들을 왜 이렇게 부르는지, 또한 언제부터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는 알길이 없다. “한국사람”도, “조선사람”도 아닌 “고려사람”이란 말은 아마도 중앙아시아의 한국인을 다시 말해서 “소련系 韓國人們”(Soviet Koreans)을 가르키는 가장 적절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그들이 중앙아시아에 당도한 지 이미 반세기가 가까워 오고, 그간 전혀 낯설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이미 모국의 한국사람들과는 많은 측면에서 상이한 생활양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송되기 전에 극동지역에서의 생활까지 합치면 그들과 그들 조상들이 모국을 떠난 것은 훨씬 더 오래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몸에 베인 한국문화는 여전히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母國을 상징하는 용어인 “高麗”를 따서 “고려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의 민족적인 배경을 잘 압축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인 것 같다.

1970년도 소련의 人口調查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소련전체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68.6%가 한국어를 母國語(mother tongue)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중 16.6%는 한국어만 유창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나머지 31.4%는 한국어를 더 이상 모국어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련 전체 한국인의 52%가 두개 이상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bilingualism)할 수 있다고 나타났고 한국어를 여전히 모국어로 간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도시(64%)에 보다 농촌(77%)에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 있다(Ginsburgs &

Ginsburgs 1977 : 953). 비록 우리는 中央아시아의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얻지 못하였지만 위에서 열거한 수치는 한국인들의 언어생활에 나타난 변화의 일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즉 그들의 반수 이상이 이미 두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지만, 전체의 3분의 2 정도는 여전히 한국어를 모국어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여행자들의 관찰결과(丸毛 1965, 金圭澤 1978, 그리고 曹圭香 1978)에 의하면 集團農場의 한국인 집단거주지역은 물론이고 도시의 한국인 집단거주지역에서는 여전히 거의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타시켄트와 같은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시내버스에서도 “아즈바이 잘있소”, “나 아무 일 없소”등의 대화를 흔히 들을 수 있고 그들은 대체로 억센 함경도 사투리가 많다고 한다. 中央아시아의 한국인들이 극동지역에서 강제 이송되어 왔고, 또한 그들 대부분이 주로 함경도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 극동 지역으로 흘러 들어간 사람들 및 그들의 자손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앙 아시아의 한국인들이 北方의 방언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中央아시아의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여전히 일상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점은 그들이 한국인만의 집단촌을 이루어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함께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도시지역에서 한국인 개개인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한국어를 모르는 異民族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경우에 그들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계속 유지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農場生活에서와 같이 한국사람들이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생활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현상은 都市내의 한국인 집단거주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타시켄트市의 코일룩街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이 거리는 전주민의 60~70%가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고려서울”이라고 불리운다고 한다. 여기에는 한국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파는 가게들 뿐만이 아니라 한국음식점(“고려식당”이라고 함)들도 있고, 역시 일상언어는 한국어로 통한다고 한다(金圭澤 1978과 曹圭香 1978).

우즈베크스탄의 수도인 타시켄트市 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政治部」(뿔리 또체)풀호즈와 「北極星」(뽀리 야루나야 즈베즈다야)풀호즈는 日本人 丸毛 忍

(1965)氏와 韓國人 金圭澤(1978)氏 및 曹圭香(1978)氏의 여행기를 통해서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한국인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농장이다. 「政治部」풀호즈는 타시켄트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한국인이 전체 농장원의 약 반수를 차지하고 있는(1964년에 丸毛 忍氏가 방문했을 때에는 70%가 한국인이었다고 한다) 집단농장으로, 이곳은 소련에서도 가장 부유한 풀호즈의 하나라고 한다. 이와 이웃하고 있는 「北極星」풀호즈는 1937년에 결성된 것으로 1964년 당시 약 5천명의 농장원 중 약 50%가 한국인이었다고 한다. 처음엔 한국인만으로 결성되었으나 점차 농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주위 지역이 병합되어 他民族이 추가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일상생에서 전면적인 접촉과 공동작업을 요하는 집단농장에 수천명의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음은 한국의 민족문화 특히 한국어를 中央아시아 한국인 사회의 생활언어로 그대로 유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 같다.

다른 한편 노인 및 취학전의 아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러시아語를 잘 사용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즈베크語 및 까자흐語 등 그 지역의 주요 토착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비록 한국인이 지배적인 집단농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엔 많은 異民族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 비록 모든 풀즈호의 중학수업은 러시아어로 하지만 한국인이 지배적인 위의 두개 풀호즈에서는 국민학교 2년부터(金圭澤 1978 : 下)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서 젊은 세대에서 모국어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인들이 넓게 흩어져서 다른 민족들과 섞여 살고 있는 곳에서는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은 가정생활에 국한된다. 자릴가시노바(1968: 28—29)가 현지조사한 우즈베크스탄의 사마르칸드區域에 살고 있는 한국인 사회는 그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 곳에는 한국어는 생산활동과 가정생활에 거의 국한되어 있다. 젊은 세대의 대부분은 중학교에서 배운 우즈베크語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일상회화에서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채빨리 옮겨가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작업하는 다른 민족들도 한국사람들로부터 한국어를 배워 한국어로 회화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것은 그들이 함께 성장하고, 같은 학교에 다니며, 일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文化接變(acculturation)의 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한국인들이 말할 때 러시아어의

어휘들이 섞여 나오고, 때로는 러시아어 名詞에 “하다” “한다”등의 한국어 동사를 붙여서 사용하는 등 中央아시아 한국인들의 언어생활은 어휘, 용어 및 構文의 영역에서 러시아語의 영향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넓게는 러시아文化, 좁게는 러시아語의 영향이 한국인의 숫자를 세는 양식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타시켄트를 방문한 한 한국인(曹圭香 1978 : 244—245)이 그곳에 얼마나 많은 동포가 살고 있는지를 질문했다가 「소련내에는 “반백만”은 될 것이고, 타시켄트에는 “양백천”이 산다」는 대답을 얻은 바 있다. “반백만”이란 말은 백만의 반 즉 50만명이란 뜻이었고, “양백천”이란 말의 “양백”이란 200을 가르키고 “천”은 곧 1000단위이니 이것은 200, 000(20만)을 뜻하는 표현이었다. 즉 서구식(러시아式)의 표현을 빌려 1천 단위와 백만 단위로 끊어서 그들은 50만을 “반백만”으로, 그리고 20만을 “양백천”으로 불렀다. 이것은 비록 한국어로 말은 하지만 숫자를 따지는 體系는 러시아식을 따르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바꾸어 말한다면 그들의 일상 언어생활에 두 가지의 文化(러시아文化와 韓國文化)가 공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文化는 한국인의 숫자에 대한 관념을 바꾸어 나갈 정도로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의 화폐의 단위를 전통적인 단위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다. 즉 1루블은 100 코페인데, 한국인들이 1루블 20코페을 “한냥 두돈”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사례에서 분명한 것은 이들 한국사람들이 비록 中央아시아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러시아와 한국 두 가지 文化的 세계에 살고 있으며, 러시아文化的 영향은 한국인의 언어생활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록 그들의 언어생활에 러시아文化的 요소들이 많이 첨가 되기는 하였지만 수많은 동포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함으로써 그들은 모국어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 한국어는 다시 한국민족(또는 그들이 자칭하듯이 “고려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공고히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 같다. 한국말을 잘하는 「政治部」풀호즈의 한 30대의 젊은 부인이 던진 “고려사람이 고려 말하고, 고려풍습대로 살아야지요”(曹圭香 1978 : 247)라는 말은 중앙아시아 한국인촌의 文化的인 아이덴티티를 적절하게 함축한 진술인 것 같다.

## ② 物質文化：衣・食・住

언어생활의 측면과 함께 中央아시아의 한국인사회에서 전통적인 한국문화

의 요소를 뚜렷이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물질문화의 영역, 더욱 구체적으로는 衣・食・住의 영역인 것 같다. 이제 이 의식주의 영역에서 뚜렷이 남아 있는 전통적인 요소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의식주의 세가지 영역중에서 가장 러시아文化 및 현대의 都市文化가 강하게 영향을 미친 영역은 衣生活인 것 같다. 현재의 한국사회에서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전통적인 의상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들은 대체로 간편한 도시형의 기성복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드물게는 옷감을 구입해서 손수 짠(특히 여성의 경우) 입는다. 예외가 있다면 특히 할머니들의 경우에 전통적인 치마를 입고, 위에는 등거리("덩고리" tyngori라고 부름)를 걸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등거리는 소매와 것이 없이 등에 걸치는 전통적인 조끼의 일종으로 남녀가 모두 입는다고 한다. 전통적인 등거리는 달리 이곳의 한국인들은 여기에 바깥으로 호주머니를 달아서 입는바 이것은 새로이 첨가된 하나의 요소이다(Djarylgasinova 1968 : 33).

일상생활에서는 대체로 전통적인 복장을 피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가정에 전통적인 복장인 한복을 적어도 한벌씩은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명절 및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민족의 상을 입는다고 한다. 이것은 中央아시아가 수많은 民族集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한국인들은 어떤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민족의 상차림으로 나와서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재확인하고 있는것 같다. 설날, 자녀들의 첫돌, 결혼식, 회갑연, 장례식 등은 가족 페넬의 축제일 또는 儀禮이고, 메이·테이, 10월 혁명기념일 등에는 중요한 행사가 있어 이 때마다 민족의 상이 등장한다. 集團農場의 대집회장 게시판에 붙어있는 사진중에는 한복을 입은 남녀 합창단, 무용단 및 한국인으로 구성된 악단의 사진들이 있더라는 것(曹圭香 1978 : 247)으로 미루어 보아 중요한 행사에서 한복은 바로 그들의 민족적 배경, 즉 그들이 한국인임을 상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中央아시아의 土着文化要素가 한국인의 의생활에 등장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사마르칸드의 한국 부인들도 우즈베크式의 의상을 입기도 하고, 특히 소녀들은 그들의 스커트 속에 우즈베크人们이 입는 긴 반바지를 입기도 한다 (Djarylgasinova 1968 : 33).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은 머리를 땋는다. 소녀들은 머리를 두갈래로 땋는 반면, 부인들은 마치 전통적으로 한국 부인들이 하는 식으로 땋은 머리를

틀어 올려서 頭部를 감기도 한다. 또한 부인들의 경우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뒷쪽에 그 수건자락을 묶는 예가 많아서 그들의 머리 형식은 마치 옛날 농촌지역의 부인들의 모습을 연상할 정도이다. 남자들의 경우 작업모, 중절모, 또는 밀짚모자를 쓰지만, 들판에서 작업할 때에는 많은 한국남자들이 여전히 한국식의 밀짚으로 만든 “갓”을 쓴다고 하는데(위의 논문), 아마도 이것은 뜨거운 햇볕을 막거나 비를 피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물질문화의 영역에서 아마도 전통적인 요소가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부분은 식생활인 것 같다. “역시 쌀밥과 김치가 없으면 하루라도 못 살겠다”는 말은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흔히 듣는 말이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시에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밥, 김치, 식혜, 고추지, 국수 등의 한국음식을 대접받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식생활의 전통적인 요소들은 뿌리깊이 남아 있는 것 같다.

한 한국인 방문자(曹圭香 1978 : 245)가 대접받은 점심은 마치 농촌의 점심 밥상을 연상케 한다. 밥상의 가운데에는 쌀밥을 가득 담은 양푼 하나가 놓였고 김치, 식혜(함경도식)와 된장에 절인 고추지등과 함께 냉수 그릇등이 올려졌다. 또 다른 한 방문자(金圭澤 1978 : 下)는 “밥이 밥그릇의 두배는 되게 높다랗게 많이” 담겨 있었다고 표현했다. 식사시에는 서구식으로 밥상에 둘러 앉은 사람들이 각자 쟁반 하나씩을 가지고 그 밥과 반찬을 일단 덜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들로부터 직접 떠 먹는다. 이런 광경은 한국의 농촌에서 아직도 더러 찾아 볼 수 있다.

中央아시아의 다른 민족들도 국수 종류를 좋아하지만, 한국인들은 발효소를 넣지 않고 만든 전통적인 국수를 즐겨 먹는다. 타시켄트시 한국인 집단거주지역에는 한글로 「국수」라고 쓴 간판을 걸어 놓은 국수집들이 있고, 일인분의 국수는 세수대야만한 그릇에 담은 양이 서울의 냉면 곱배기 두배 정도는 된다고 한다. 자릴가시노바(1968 : 33—34)에 의하면 명절에 남자들이 “분틀”(puntkhul')로 반죽을 납작하게 만들어 국수를 뽑아내는 작업을 도와 준다는 것을 보면, 일반 가정에서도 분틀을 소유하고 직접 국수를 만들어 먹는 것 같다.

서울로부터 간 방문자들(金圭澤 1978과 曹圭香 1978)에게 귀한 손님이라고 보신탕(“개장” 또는 “개장국”이라고 부른다)을 하자고 제안한 것을 보면 보신탕은 중앙아시아의 한국인 사회에서 여전히 하나의 별미로 남아 있는 것

같다. 또한 한 한국인 가정집의 마당 한 구석에 놓여있는 디딜방아, 맷돌, 절구통등은 전통적인 한국식 식생활의 면모를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런 큼직한 디딜방아를 그들이 강제이송 당시에 함께 가져 갔을 리는 없을 것이다. 즉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음식을 만들기 위해 이런 도구들을 만들어 사용해 왔을 것 같다. 맷돌은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드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별미 중에는 “채”(chkhe)와 “회”(khve)도 빼놓을 수 없다(Djarylgasinova 1968 : 33). 채는 양배추, 당근, 도마도, 가지 등의 야채들을 절게 썰어서 고추가루, 식초 등을 넣고 무쳐서 만든 반찬이고, 회 즉 생선회는 가장 인기있는 음식의 하나라고 한다. 결혼, 생일, 회갑 등의 축제일에는 주주일 전부터 음식준비가 시작되고 친척들이 도와 주러 모여든다고 한다. “찰떡”, “두부”, “길금채”(아마도 식혜인 것 같음)등을 만드는데에는 여러 사람들의 협동작업을 요한다. 또한 축제일의 메뉴에는 “파줄(kvadiul)”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한다. 이것은 밀가루를 꿀과 기름에 반죽한 뒤, 파줄판에 박아 기름에 끼워 지진 油菓 또는 藥菓라고도 불리우는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으로 자릴가시노바(p. 34)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들은 결혼잔치에 파줄이 빠지면 “그것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텅 빈 공휴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민속음식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결혼식에는 800개 내지 1,200개의 파줄이 만들어지고, 회갑연에는 2,000개 이상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결혼잔치를 한번 치를 파줄을 만드는 데만도 다섯명의 부인이 작업해서 일주일이 걸릴 만한 작업량이지만, 그들은 이런 민족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으면서 주기적으로 그들이 “고려사람”임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 같다.

비록 食生活이 비교적 전통적인 요소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이들 한국인들이 中央아시아에서 수많은 다른 민족들과 공존하고 있다는 점은 필연적으로 식생활의 변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인들만이 러시아 文化 또는 中央아시아의 토착민들의 식생활 양식을 일방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라, 異民族에 영향을 주기도 한 호혜관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빵과 우유제품들이 점차 한국인들의 식생활에 등장하고, 빵은 쌀죽과 함께 거의 모든 식사때마다 식탁에 오른다. 자릴가시노바(p. 34)는 그의 조사대상이었던 한인촌에서 사람들이 茶를 많이 마시기 시작한 새로

운 관습을 관찰하였다. 전통적으로 한국 농촌 사람들이 茶를 거의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이웃 우즈베크人们的 풍습에 영향을 받은 것임이 틀림없다. 緑茶와 黑茶가 인기있고, 우즈베크人과 따드쥐끄人们과 같이 한국人们도 식사전에 茶를 권한다고 한다. 한국人们들은 또한 우즈베크式의 편편한 빵을 잘 먹는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제 많은 우즈베크人과 따드쥐끄人 가족들이 한국人们로부터 배워 김치를 담아 먹고 한국식 국수를 만들어 먹고 있다는 점은 한국문화의 요소들 중 일부는 다른 민족에까지 퍼져 나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住生活의 영역에서 가장 뚜렷하게 발견되는 전통적인 문화요소는 아마도 온돌방인 것 같다. 그들은 그것을 한국의 전통적인 용어대로 “구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온돌장치의 작업은 家長이 맡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택건설대의 한국인 전문기술자가 하기도 한다. 아무튼 이 작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어서, 온돌장치를 잘하는 기술자는 크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런 온돌방의 편리함은 다른 民族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어서 샤릴가시노바(p. 31)에 의하면 때로는 우즈베크人们도 한국人们에게 그들의 집에 온돌장치를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中央아시아 한국人们的 가정에 설비되어있는 온돌장치는 부엌과 방이 벽이 없이 하나로 연결된 형식을 취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즉 방은 부엌보다 한자 정도 높여서 온돌을 놓았다(曹圭香 1978 : 244). 이것은 함경도 지역의 전통적인 民家 형식으로, 이주민의 대부분이 함경도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들에게 익숙한 주거양식을 따른 데에서 나온 결과인 것 같다.

물론 전통적인 온돌장치의 원리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 구체적인 형식은 러시아 文化的 영향이 가미되어 약간 변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부엌 아궁이에 “가마”(kama : 釜)를 달고 불을 땄지만 지금은 러시아式的 웃 면이 평평한 요리용 스토브를 달아서 거기에서 요리를 하고 바로 그 스토브에서 나오는 열을 온돌장치로 통과시켜 온방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돌로 굴뚝을 쌓았던 것이 현재에는 벽돌로 대체되었다는 점도 하나의 새로운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겠다.

온돌방의 존재는 한국인 가족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즉 부엌에 연결되어 있는 온돌방은 모든 가족생활의 중심이 된다. 가

정의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주부가 요리를 하고, 손님을 맞으며, 가족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잠을 자는 곳이 바로 여기이다. 라디오나 텔리비죤 수상기도 이 방에 놓여지고 어린애들이 공부하고, 노는 곳도 바로 이 곳이다. 대체로 이 방엔 그릇을 넣어 놓은 찬장 이외에는 별다른 가구를 들여 놓지 않고, 요, 이불, 베개 등의 침구와 때로는 옷을 넣어 놓은 상자들을 벽에 붙여서 쌓아 놓는다. 방은 항상 깨끗하게 닦아 놓고, 들어갈 때는 누구든지 항상 신발을 벗어야 한다(Djarylgasinova 1968 : 31).

온돌장치를 갖지 않은 집의 가정생활도 온돌방을 가진 집의 그것과는 큰 차이없이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 같다. 마룻바닥은 폐인트 칠판을 하거나, 리노리움을 깔고 항상 깨끗이 유지한다. 양탄자를 까는 집도 많다. 이런 방을 들어갈때도 역시 신발을 벗고 들어가지만 대개 슬리퍼를 사용한다. 역시 침구와 옷상자들을 방의 한쪽 벽에 기대어 쌓아 두고 부인들은 일반적으로 마루에 쭈그리고 앉아서 빨래를 한다. 또한 가족원들은 마루에서 세수대야에 물을 떠서 세수하는 등 온돌장치를 가진 집에서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온돌장치를 가진 집과는 달리 이런 도시형의 주택은 부엌이 식당의 역할을 한다. 즉 온돌장치가 없는 집에서는 식탁용 높은 테이블을 부엌에다 놓고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지만, 온돌장치가 있는 집에서는 부엌에 연결되어 있는 온돌방에 전통적인 양식의 낮은 테이블인 “밥상”에 둘러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中央아시아 한국인들의 住生活은 전통적인 온돌장치인 “구돌”을 위시하여 주택의 건축양식, 침구, 침구의 보관양식, 밥상, 마루에 앉아서 작업하는 관습 등 많은 전통문화의 요소들을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비록 이런 전통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住生活의 주축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中央아시아 土着文化 및 러시아 文化의 요소들이 가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엌의 아궁이에 걸린 전통적인 솔인 가마들은 러시아式의 요리용 스토브로 대체되기도 하고, 여러 방들 중에서 온돌장치가 되지 않은 방들에는 침대가 등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생활의 측면에서 가족생활의 중심으로서의 온돌방의 존재는 이와 관련된 많은 전통적인 文化요소들의 보존 및 연속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만 하겠다.

### ③ 文藝活動

中央아시아의 한국인 사회는 해외로 이주해 나간 어떤 한국인 교포사회들과도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그들은 고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의 고국의 母文化와는 접촉을 단절한 채 살고 있다는 점이다. 中共에 거주하고 있는 수백만의 한국인들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비록 그들은 조국에 자유롭게 왕래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조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서 전파매체를 통한 고국의 소식은 어느 정도 들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中央아시아의 한국인들은 그들 자신들이 “고려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재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조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며 알 기회도 없고, 또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이것은 그들이 한국으로부터 직접 이주해 나간 것이 아니라 일단 소련 통치하의 極東지역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생활하고 난 뒤에 中央아시아로 강제 이동되었다는 둘째번 특징과도 관련되어 있다. 즉 이들 한국인들 중에는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이 드물고, 비록 있다고 해도 아주 어려서 부모들에 이끌려 극동지역으로 옮겨 간 사람들이어서 사실 그들에게는 中央아시아의 한국인 사회 자체가 중요하지 현재의 조국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은 것 같지 않다.셋째로 中央아시아의 한국인들은 수많은 異民族集團들과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 곳에는 우즈베크人 및 까자흐人們과 같은 토착민들이 있지만 소련 전체로 보면 그들도 역시 소수민족일 뿐이며 러시아 文化가 역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역의 토착민족일 뿐이다. 이런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에서 한국인들이 상위도 하위도 아닌 같은 지위에의 한 民族集團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그 집단의 통합 및 단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中央아시아의 한국인들은 숫자으로도 많을 뿐더러 해외의 다른 한국인 교포 사회와는 달리, 빠른 속도로 도시사회에 스며 들어 각자 전문화된 직업분야로 흘어지기 보다는 오랫동안 전통적인 농경에 종사하면서 한국인들만의 집단을 이루고 살아 왔다는 점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현재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도시지역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서 전통적인 문화요소들이 잔존할 여지가 더 많다는 점에는 별로 이의가 없는 것 같다. 또한 이 농촌지역에 수많은 한

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民族的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었음이 틀림없다. 비록 숫자적으로는 도시로 나가 살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역시 농촌의 한국인들은 그들에게는 제 2의 마음의 고향들인 것 같다. 여기에는 적어도 도시지역에서는 유지되기 어려운 온갖 전통적인 한국문화의 요소들이 남아 있어서, 中央아시아의 한국인 사회 및 한국문화 유지에 활력소를 제공해 주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이 간다.

이상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中央아시아의 한국인 사회의 특수성들은 모두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또한 그런 관심을 유지해 오는 데에 기여한 것 같다. 쟈릴가시노바(p. 28)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 가정들에서는 한국어로 된 문학서적들이 발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특히 김삿갓의 時를 애송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中央아시아의 한국인들, 즉 그들이 부르고 있는 대로 “고려사람들”의 정신적인 고향은 현재의 분단된 조국으로서의 남한도 북한도 아닌 “고려”(Korea) 및 “고려文化”(Korean culture)임이 틀림없다. 즉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고려”的 文化的인 상징들(cultural symbols)이 바로 그 수많은 한국인들을 하나의 소수민족집단으로서의 한국인 社會를 한데 묶고 다른 민족집단들과의 상호접촉과정에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재확인하려는 데에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 같다.

수많은 소수민족집단들을 포함하고 있는 소련은 정책적으로 이들의 민족문학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한국민족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국詩人들의 작품들이 러시아 語로 번역 출판되었고, 1958년에는 까자흐스탄共和國에서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한국의 대표적인 詩들을 모은 책이 출판되기도 하였다고 한다(丸毛 1965 : 109). 거기에 어떤 詩人들의 작품이 담겼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런 책이 출판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민족문학예술 활동이 한국인 사회의 문화과정에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한국의 傳統歌謡도 한국인 사회에 여전히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민요조의 “옹해야”, “아리랑”, “농부가”, “양산도”, 및 “도라지타령” 등도 비록 그 반주에는 러시아 악기 또는 서양 악기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앙아시아의 한국인들이 애창하고 있는 민요의 레파토리에 속한다. 民族舞踊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집단농장(플호즈)의 클럽에서는 명절날이나 축제일마다 칼춤, 부채춤, 장삼춤 등의 민족무용이 공연된다. 까자흐스탄의 크질·올다에는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民族劇團이 있다. 이 극단은 1932년에 극동지역의 우라지보스톡에서 창립되어 1937년 강제이동 당시에 중앙아시아로 옮겨온 것으로 단원중에 몇 명은 까자흐스탄 共和國 “國民藝術家”의 칭호를 받은 바도 있다고 한다. 공연의 레파토리 중에는 노래, 춤, 연극 등을 포함하고, 배우 외에도 화가, 작가, 작곡가, 음악가 등도 참여하여 하나의 극단을 구성하고 있다. 이 극단은 크질·올다의 극장에서 공연하는 것 외에도 까자흐스탄과 우즈베크스탄의 한국인 집단농장들을 순회하면서 “춘향전”, “심청전” 등의 고전적인 한국 연극 뿐만 아니라, 고리키의 「敵」, 도스토예프스키의 「罪와 罰」, 세익스피어의 「오셀로」 및 우즈베크 作家인 하마즈 하킴 쟈제의 작품 「地主와 小作」 등을 모두 한국어로 공연한다고 한다. 한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이 극단의 레파토리에 포함되어 있는 장창춘의 작품이라는 현대극 「38度線의 南쪽」은 러시아語로 번역되어 소련의 많은 도시에서 공연되어 널리 호평을 받았다는 바(丸毛 1965 : 109),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꾸며졌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筆者が 찾아 볼 수 있는 한 “分斷된 祖國”에 관한 유일한 관심사였다.

이 극단은 까자흐스탄의 유일한 共和國立 韓國人 民族劇團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團員을 재충원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극단의 단원들은 대체로 타시켄트의 연극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라고 한다. 젊은 신진단원들을 흡수하지 않고서는 이런 民族劇團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을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까자흐스탄의 한 유력한 신문인 Kazakhstanskaya Pravda(1971년 8월 20일자 ; *Mizan* 1971, Vol. XIII—3 : 168에서 재인용)에 실린 기사는 이 민족극단의 재충원 문제가 언급되어 있다. 즉 현재 소련에는 배우들을 훈련시킬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은퇴하는 단원들을 대체할 젊은 배우들을 찾아 내기가 어렵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희곡이 없어서 오랫동안 이 극단의 레파토리는 거의 전적으로 번역된 극들로 공연했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앞으로의 한국민족극단의 존립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 자라오는 세대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약화되고, 다른 文化, 특히 러시아文化와의 접촉은 더욱 강화되고 있어서 위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오래전의 일이지만 까자흐스탄의 우슈또베市에는 “高麗劇場”이라고 불리우는 한국인 극장이 있었다고 한다(吳基元 1966 : 328—329). 이것은 한방문자가 1953년에 확인한 사실이지만, 이 극장이 아직 존속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우리는 이 우슈또베라는 小都市가 1937년에 강제이송된 한국인들이 中央아시아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곳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곳의 고려극장에서는 모든 공연을 한국어로 하고 있어서 한국어를 모르는 2世들은 극의 내용을 몰라서 때로는 우스운 얘기를 해도 웃지 않고 슬픈 대사를 엮어 나갈 때에 슬퍼하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수민족들 가운데 民族語로 공연을 하는 것은 이 고려극장 밖에 없어서 그 지역의 한국인들에게 궁지를 불어 넣어 주는 좋은 촉매제로 작용했던 것 같다. 특히 그 극장에 관객이 없을 경우 당국으로부터 폐쇄당할 우려가 있어서도 한국인들은 합심하여 이 극장을 지원하였고 연일 만원을 이루었다고 한다. 때로는 멀리 「알마・아파」나 「타시켄트」 등지로부터도 노인들이 일부러 이 고려극장의 공연을 구경와서 격려해 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中央아시아의 한국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예활동의 일면을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그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각종의 활동들을 연결시키고 그들을 한데 모은 데에는 한국인들의 손에 의한 대중매체의 힘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中央아시아의 한국인 사회들을 전체로 커버하는 대중매체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각 지역의 몇몇 중요 도시에서는 이런 매체들이 한국인 사회의 文化過程에 중요한 통합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크질・울다의 韓國語 신문과 타시켄트의 한국어 방송은 그의 좋은 예라고 하겠다. 즉 까자흐스탄의 크질・울다에서는 「페닌旗幟」라는 한국어 신문이 발행되고 있어서 까자흐와 우즈베크의 대부분의 한국인 가족들이 이 신문을 정기구독하고 있고, 우즈베크스탄의 타시켄트 방송국에서는 한국어로 엮은 정규 방송이 있어서 역시 한국인 사회의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言語生活, 物質文化 및 文藝活動의 측면에서 中央아시아의 한국인 사회에서 나타난 바의 文化過程을 살펴 보았다.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는 사회구조 및 민간풍습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전통적인 문화요소 몇 가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 보기로 하자.

비록 수많은 동포가 집단을 이루어 살기도 하지만, 조국을 떠나 전혀 상

이한 지리적・사회적 환경에서 적응해야만 했고 다른 민족들과 일상생활에서 거의 전면적인 접촉을 하면서 생활해 나간다는 현실적인 조건은 한국인 사회의 社會學的인 측면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남성 위주의 전통적인 인간관계도 또한 소련 전체가 기초하고 있는 社會主義體制, 특히 생산위주의 경제체계하에서 수정 및 변용이 불가피했던 것 같다. 여자도 남자에 못지 않게 생산을 포함하는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요구되었고, 社會・政治的인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능한 한 많은 노동력의 동원을 요하는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많다는 점이 여성들을 가정의 영역에만 묶어 두지 않게 하는 데에 기여한 점도 클 것이다. 여하튼 전통적인 남녀간의 사회적인 격리의 관념은 현실적인 여전속에서 약화되지 않을 수 없었고 젊은 남녀들간의 사회적인 접촉도 증가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中央아시아의 한국인들이 수많은 異民族들과 일상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社會過程은 펼연적으로 젊은이들의 결혼을 위한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임은 물론이다. 일시적인 접촉이 아니라, 오랫동안 같은 또래 집단을 이루면서 성장하고, 학업을 받으며, 사회적인 생활을 하다보면 民族集團의 태두리를 넘은 異性간의 교제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고, 결국 혼인에까지 연결되는 예도 적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혼하지 못한다는 관념은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될 것임은 아마도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나는 고려사람이 아니면 장가 아니 듭니다”라고 말한 어느 한국인 청년의 말(金圭澤 1978 : 下)은 아직도 한국인은 한국인과 혼인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오늘 날 젊은이들간에는 다른 민족 특히 러시아 人과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서 노인들도 꼭 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한다(丸毛 1965 : 108).

혼례는 한국의 전통적인 풍습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결혼식의 비용은 대체로 신랑측에서 부담하고, 신부측에서는 침구, 의복, 집기 등의 가재도구들을 마련한다. 신혼부부들은 결혼과 함께 새로운 家口를 창설하여 분가해 나가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부모나 친척들이 집단농장의 도움을 받아 집을 짓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 것 같다.

儀禮의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풍습이 엿보인다. 가족원이 사망하면 친척들이 모여 3일간 죽음을 슬퍼하고 난 후에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묘지에 매장

하는데, 이때 고인의 옷가지 등 소지품들을 소각하고 제를 올린다. 祀日에는 묘지를 참배한다. 그러나 中央아시아의 한국인들 간에는 祖上祭禮와 같은 민간신앙이 老人층 일부에 아직 약간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외의 종교적인 열광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고 한다. 소련에 이주한 한국인들 간에는 처음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많았지만 현재에는 아무런 기성종교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丸毛 1965 : 109).

### 結　　言

지금까지 우리는 中央아시아의 한국인 사회를 개략하였고 거기서 전개되어 온 文化過程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우선 우리는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한국인 사회의 규모 및 특성들을 살펴 보았고, 그들이 조국을 떠나 멀리 中央아시아로 강제이동된 경위와 경로를 살펴보았다. 또한 러시아文化 및 中央아시아 諸民族의 토착문화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그들이 옮겨간 전통적인 韓國文化의 요소들이 어떤 文化接變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中央아시아의 韩國文化”로 친존하고 있는지를 이용가능한 문헌들에 의거하여 살펴 보았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에 中央아시아의 韩國人 사회에서 형성되어 온 文化는 그들이 옮겨간 한국문화와도, 현재의 한반도에서의 한국문화와도 다른 특이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들이 가져간 전통적인 문화요소들은 변용되었고, 여기에 러시아文化 및 다른 토착문화들이 첨가되어 하나의 綜合(synthesis)을 이룬 것이 바로 현재의 文化인 것이다. 거기에는 각 영역에서 많은 전통적인 한국문화의 요소를(예컨대 한국어, 구들, 김치, 전통의상 등)이 엿보이지만, 그것들이 외연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은 비록 동일한 것 같지만, 다른 文化特性들과의 관련에서 가지는 意味들은 대개의 경우 달라졌다. 그것은 中央아시아에서 한국인 사회에서 나타난 文化는 祖國의 그것과는 상이한 세트(set)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中央아시아로 강제 이송된지 40여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祖國을 떠나 極東지역으로 넘어간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한국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한국을 모르고 있음이 분명하다. 혹시 노인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알고 있는 “고국소식은 주로 옛날 일본 사람의 박해와 가난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났던 부모들로부터 들은 것이었다”(曹圭香 1978 :

246). 그들이 오랫동안 자본주의 체제하의 南韓과는 전혀 아무런 문화적인 접촉을 갖지 않았었고, 사회주의 체제하의 北韓과도 별다른 의미있는 접촉(비록 북한의 공산화 초기에 몇몇 지도자들이 돌아와 소위 “소련派”를 형성 하진 했었지만)을 갖지 않았다는 점에서, 中央아시아의 한국인 사회는 한반도에서 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들이 자신들을 “고려사람”으로 부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이 새로운 문화를 “中央아시아의 高麗文化”라고 불러도 좋겠다. 여기에는 물론 그 文化가 남한의 것과도, 북한의 것과도 다른 양식으로 전개되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소련의 민족학자들은 “소련의 한국인들이 [韓國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과는 구별될 만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을 “소련系 韓國人”(Soviet Koreans)으로 부르고 있다(Djarylgasinova 1968 :註⑥ 참조). 이 개념은 한국인들이 소련에서 살아오는 동안 그들의 생활 양식 즉 文化에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들 “소련系 韓國人們”은 한국인으로서 보다는 “韓國系 소련人”임에 더 우승지를 느끼고 있는 점도 없지 않은 것 같다. 1975년에 中央아시아의 어느 한국인 집단농장을 방문한 한日本人 여행자는 그의 여행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즉 어느 가정을 방문하여 주부에게 “年老한 분들은 때때로 고향의 일을 상기하겠지요?”라는 질문을 던지자, 그 부인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식들은 이 땅이 저들의 출생지이자 고향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하였고, 또한 옆에 서 있던 농장지도자 한 사람은 “노인이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가 이 땅을 개척한 소련인이니까요”라고 말을 받았다고 말을 전하고 있다(尾崎彥溯 1979 : 137—138). 비록 그들은 하나의 정치적인 희생물이 되어 멀리 중앙아시아에까지 옮겨져서 살게 되었지만, 그들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서도 그 때까지만도 不毛地로 벼려졌던 초원을 개간하여 유토토로 전환시키는 등 中央아시아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자신들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한국인”으로서 보다는 “소련사람”으로 더 궁지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정착한 中央아시아 지역이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공존하고 있는 땅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은 한국인 사회의 통합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들이 그중 어느 특정의 민족 및 문화에도 흡수 용해되지 않은 채 생존할 수 있었던 데에는 中

央아시아에만도 20만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생활의 터전을 닦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임이 분명하다. 즉 그들이 거의 반세기가 가까워 오는 동안에 그들의 표현대로 “고려사람”이라는 민족적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생존해 올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문화적인 배경위에서 가능했던 것 같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한국인 사회의 文化過程에서 전통적인 한국문화의 요소들은 하나씩 둘씩 퇴색 또는 탈락해 가고 있음은 아마도 불가피한 현상이었는지도 모른다. (母文化와의 접촉을 결여하고 있음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앞에서 예로 든 바의 “양백천명”(20만명)이라는 말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사람들의 思考體系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지배적인 文化인 러시아 文化的 중요성이 커질수록 전통적인 한국문화 요소들의 세대간의 전승은 더욱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통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노년층과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간의 세대차는 더욱 커질 것이고, 특히 후자의 경우 전통적인 한국문화요소들을 다른 문화의 것들과 별 차이없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간주할 때 노인들은 그런 젊은이들을 이해하기란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中央아시아의 한국인들(소련의 한국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의 姓名들은 러시아와 韓國을 포함하는 두개의 文化속에 살고 있는 한국인 사회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최초의 이주자들은 편의상 자신의 姓에 러시아式 별명을 붙여서 사용했다. 그러나 2世・3世는 러시아式 별명의 韓人의 아들・딸 아무개라고 러시아式 성명을 공식으로 채용[登錄]하고 있다. 물론 姓은 傳來의 것이지만 러시아式으로 이름——아버지의 별명——姓의 順으로 적는 것이다”(尾崎彥朔, 위의 글 p.138). 노년층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식의 성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간에는 절충식의 이름이 특히 많이 눈에 띈다. 예컨대 聯邦最高소비에트議員(國會議員)이며 「政治部」풀호즈의 토우모로코시 栽培隊長을 겸하고 있는 “류一바·李”女史는 러시아式의 個人名에 한국식의 姓을 부친 절충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 비록 혼하지 않지만 한국인들간에는 한국식의 姓으로도 통하지만 공식적으로 완전히 러시아式의 이름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 지도자급의 사람으로는 까자흐스탄의 處女地地方의 國營農場(소호즈)局 次長으로 있는 朴氏는 “아렉세이·안드레비치”라는 이

름을 가졌고, 집단농장 「까자흐스탄 18年」의 委議長은 “도미토리 • 하세노비치”라는 러시아式의 이름을 가진 분들이었다(丸毛 1965 : 109). 뿐만 아니라 女姓의 이름에도 러시아文化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나타나 있다. 즉 전통적으로 한국의 부인들은 결혼후에도 친가의 姓을 그대로 유지하는 “姓의 不可變”的 원리를 철저히 준수하였으나(이 점은 지금도 한국에서 변함이 없다) 소련에서는 결혼하면 부인은 남편의 姓을 따르고 있는바 이런 현상이 보편화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부터라고 한다(尾崎彥溯, 앞의 글 p.138).

이상에서 우리는 中央아시아의 韓國人社會에서 전개되어온 文化過程을 중심으로, 한국인들이 옮겨간 한국문화와 그 지역의 토착문화 및 넓게는 러시아文化간의 상호작용을 살펴 보았다. 1937년에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진 한국인의 강제이주와 함께 中央아시아로 옮겨진 한국의 전통문화는 거의 반세기에 걸친 다른 文化들과의 거의 전면적인 접촉으로 이제 그 면모를 달리 하고 있다. 즉 한국인 社會의 文化體系에는 그들이 가져간 전통문화의 많은 요소들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異民族의 文化要素들도 첨가되었고, 또한 그들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새로운 요소들이 생성되어 이제 한국인 사회의 생활양식의 한 부분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한 경우들도 적지 않다. 여기에는 또한 전통문화 중에서 더 이상 잔존할 수 없는 부분 혹은 요소들이 한국인 사회의 문화과정에서 소멸되어 버리기도 하였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中央아시아의 韓國人社會는 하나의 文化體系(cultural system)가 전혀 상이한 文化的인 풍토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어떤 식으로 變容해 나가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文化接變의 한 좋은 실험장을 제공해 주고 있다. 먼저잖아 모든 1世들이 이 실험장으로부터 사라지고, 中央아시아의 韓國人社會가 2世・3世・4世로 대체되어 갈수록 문화접변의 폭은 더욱 커질 것이고 또한 가속화될 것임은 분명하다.

本論文이 극히 한정된 자료에 의거하였기 때문에 中央아시아의 韓國人 社會의 문화과정을 一般化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필자 또한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자료만으로도 연구대상의 윤곽 또는 일반적인 특성을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필자는 감히 이 연구를 시도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가 수집되는대로 이 논문의 내용은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 參 考 文 獻

- 金圭澤：1978 “타시켄트 韓人村을 가다(上, 下)”「東亞日報」1月 4, 5日字。
- 姜周鎮(編)：1979 「韓國과 蘇聯」, 서울：中央出版。
- 吳基完：1966 “平壤, 모스크바, 서울”「新東亞」, 5, 6, 7月號。
- 曹圭香：1978 “타시켄트의 韓人村”「月刊中央」120號(3月號)：238-251。
- 玄圭煥：1967 「韓國流移民史」, 서울：語文閣。
- 丸毛忍：1965 “中央アジアの朝鮮人”「アジア經濟」(日本, 東京), Vol. 6, No.6: 104-109.
- 尾崎彥溯：1979 “소련 속의 「韓人 클호즈」”, 「韓國과 蘇聯」(姜周鎮編), pp. 135-138. (「北韓」1976년 4월호에서 읽겼음)
- Djarylgasinova, R. Sh. : 1968 "On the Question of Cultural Convergence of the Koreans of the Uzbek SSR with Neighboring Peoples: The Traditional and the New in the Economy and Material Culture," in *Soviet Anthropology and Archeology*, Vol. VII, No. 1 : 26-35, (White Plains, N. Y.: International Arts and Sciences Press) (Trans. from the Russian original, published in *Sovetskaia etnografia*, 1966, No. 5 : 3-14).
- Ginsburgs, George & Herta Ginsburgs : 1977 "A Statistical Profile of the Korean Community in the Soviet Union," in *Asian Survey*, Vol. 17, No. 10 : 952-966.
- Ionova, Yu. V. : 1963 "U Koreytsev Sredney Azii," (With the Koreans of Central Asia) Akademiya Nauk SSSR, Institut Etnografii, *Kratkiye soobshcheniya*, XXXVIII.
- Kazakovich, I.S. : 1979 "소련에서의 韓人과 韓國學," 「韓國과 蘇聯」, pp. 140-158.
- Kim, Syn Khva (Kim Sung-hwa) : 1965 *Ocherki po istorii sovetskikh Koreytsev* (Essays on the history of Soviet Koreans), Alma Ata, "Nauka."
- Kolarz, Walter : 1954 *The Peoples of the Soviet Far East*, N.Y.: Praeger.
- Stephan, John J. : 1971 "The Korean Minority in the Soviet Union," in *Mizan* (Incorporating *Central Asian Review*, published by the Central Asian Research Centre, London), Vol. XIII, No. 3 : 138-150.
- U.N. Dept. of Social Affairs : 1951 "International Migrations in the Far East during Recent Times: The Countries of Emigration." *Population Bulletin*, No. 1 (Dec.): 13-30.